

특별기고문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

‘콩밭에서 엉뚱한 인물이 나온다.’ 이는 증산 선생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콩밭은 한자로 태전(太田)이다. 태전을 충청도 태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 견강부회(牽強附會)에 불과한 주장이다.

태전의 태(太)는 근원과 시초를 의미하며 전(田)은 세상의 밭이 아니라 심전(心田)이다. 근원과 시초의 마음 밭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의미한다.

격암유록의 이재궁공을(在在弓乙乙田) 이재전전(在在田田)을 살펴보면 궁공을이 전전이고 이로움이 전전에 있다는 말이다. 이로움이란 생명을 보전하는데 있어서의 이로움을 말한다. 전전에서 앞의 전(田)이 바로 궁공의 태전으로 삼제 하나님이다.

격암유록의 입장에서 보면 가사총론의 하락영인(河洛靈人) 무용출세지장(無用出世之將)의 십인(十人)이 궁공이요 태전이다. 뒤의 전(田)이 을음의 전으로 엉뚱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엉뚱한 인물은 일반 상식 또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육신에 따라 움직이는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엉뚱한 인물은 바로 증산 선생이 말한 대두목 정도령이다. 궁공의 하나님 태전으로부터 도를 전해 받는 분이 을음의 전이다.

궁공의 태전이 전도관을 세워 을음의 전(田)에게 도를 전함

격암유록 송가전에 ‘남조선선정전(南之朝鮮先定)하야 박활(朴活)에게 전위(傳位)하사 라는 구절이 있으니 전사성군 하나님 먼저 남조선의 박활인(朴活人)에게 하나님의 위(位)를 전하였다는 말인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조선에 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박활인 박태선이 전도관을 세워 역사한다고 격암유록은 전하고 있다. 궁공의 태전이 전도관을 세워 을음의 전(田)에게 도를 전하게 된다. 을음의 전이 도를 받는다는 것은 도를 전해 준 궁공 하나님 태전과 하나가 됨을 말하며 을음이 궁공을(弓乙乙) 전전(田田)이 되어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마귀를 이기신 심승 하나님이 온전치 좌정하였음을 말한다. 이를 두고 신인합일(神人合一)이라 한다.

수운 선생도 심허즉수도(心虛即修道)



▲ 1956년 꿈에 본 생미륵불(삼불) 그림을 모서 두었는데, 78년 다시 꿈에 생미륵불이 나타나 “내가 2년 후에 세상에 나가네 니 그때까지 마음을 정결히 하고 그림을 잘 보관하라.”는 명에 의해 보관. 76년부터 두 그림은 퇴색되기 시작하고, 모든 기원 이 생미륵불에게 가서 1980년 말부터 광채를 발휘하기 시작함. 유튜브 진지아롱TV

라고 한 즉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에 잡념 망상 욕심이 한 점도 없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의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폭군 곁왕(桀王)과 같은 마귀가 들어와서 나라를 의식으로 자리 잡고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마음으로는 도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의 도(道)란 유불선합일의 도를 말한다. 증산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는 판이 좁아 한 가지 범술로도 능히 교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크고 복잡하여 한 가지 범술로는 아니 되니 유불선의 정수(精髓)를 뽑아 선(仙)에다가 기운을 불어 두었다고 한바 유불선합일의 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를 받는다 함은 마음의 바탕과 그릇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는 구도와 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증산 선생은 맹자의 고자장(告子章)을 말하였고 격암유록에서는 곤이지지(困而知之)를 말했던 것이다. 구도(求道)의 길을 가는 자는 예외가 없는 것이다.

궁공을 정도령은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가 불어 있으니 이윤(伊尹)의 도수는 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로서 신미생(辛未生)으로 오신 정도령이 오십(五十)에 도통하고 문왕(文王)의 도수는 칠년 옥고(七年 獄苦)에 있으니 칠년 옥고를 치른다는 것을 말한다. 죽어 천당이 아니라 살아 천당을 의

치니 죽어 천당을 말하는 무리들의 꾀박과 음해로 말미암아 칠년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대두목 정도령에게 도통줄을 내려 주어 대두목이 천지개벽을 한다

증산선생이 말한 두 사람이 바로 ‘태전과 엉뚱한 인물’이다. 궁공과 을음이며 태전과 전을 말한다. 궁공과 을음이 하나가 되면 궁공을이 되고 곧 대두목 정도령이 된다.

격암유록 은비가에서 ‘이인태전수전곡(二人太田水田穀)’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인(二人) 즉 두 사람은 궁공과 을음이다. 태전은 하나님으로 여기서 생명이 발원이 되는데 강의 발원지를 보면 그 물의 양으로는 농사를 짓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 물이 흘러 내려와 중간지점에는 제법 물이 불어나지만 역시 농사 짓는 데는 부족하다. 다시 더 흘러 내려와 마지막 지점에서는 강물이 더욱 불어나서 농사 짓는데 충분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격암유록에서는 최초의 생명의 발원지를 상진사라 하고 중간지점을 중진사, 마지막 지점을 하진사라 한다. 마지막 지점의 생명수는 발원지와 중간지점, 마지막 지점의 생명수가 합하여 있는 것이다. 마지막 주인공이 하늘 농사를 지어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다. 격암유록에서는 ‘삼인동행(三人同行) 삼처박수(三處朴誰) 삼림출세천수박(森林出世天數朴)’ 등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일층이 없으면 이층이 있을 수 없고 일층 이층이 없으면 삼층이 있을 수 없듯이 삼층은 일층 이층 삼층의 모든 기원이 모여 삼층을 이루는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재는 세 분이지만 중진사는 여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보통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 선생이 두 사람을 말했고 삼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두목 정도령에게 도통줄을 내려 주어 대두목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는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이자삼점(伊字三點)이라 하는데 미륵불은 이렇게 세 분으로 오셔서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륵 삼존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금산사의 삼층 미륵전도 같은 의미이다. 미륵 독존불, 이존불, 오존불, 칠존불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궁공을 심승 정도령에서 심승이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며 마침내 감로해인을 완성하여 마귀를 박멸 소탕할 수 있는 관능을 가지게 된다. 마귀를 소탕해야 죽음이 없는 신선세계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세계에서는 감로해인을 먹고 산다. 감로해인이 삼신산의 불로초요, 동해삼신 불사약이다. 격암유록에서는 일년농사 일일삼식이야사(一日三食飢餓死) 하나님 농사는 삼순구식불기생(三旬九食不飢生)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 년 농사지어 삼시 세 때 먹어도 마지막에는 굶어 죽게 되어 있고 하늘나라 음식인 감로해인은 삼심일에 아홉 번만 먹어도 굶주림 없이 장생한다고 하였으니 무엇보다 감로해인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감로해인은 궁공을 정도령이 내려주므로 정도령을 반드시 만나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도령으로부터 감로해인을 받아 간직하고 감로해인으로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된다. 구세주라야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처럼 알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구원 영생은 없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그 때와 기회가 있으니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도령을 만나야 할 것이다. 시지부지(時至不知) 후회막급(後悔莫及)이라. 솔바람은 흰 구름을 따르고 신선이 타는 청아한 금 거문고 천향(天香)을 부르는구나.*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5>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더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들아’라고 한 것은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 득실거리므로 무덤이라고 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조상들의 귀신 몸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벗고 의인이 되면 죽은 조상들도 다 구원이다. 내 속에 조상들의 영이 있으

로 내가 하나님이면 그들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경에도 ‘본래 마음 되찾아 이내 마음 부처 되면 조상 천도 절로 되니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가 불국 세계에 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효도인 것이다.*

이기는 삶: 실패와 역정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에벨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나는 긴 시간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 기우를 가지고 와 고치 구멍을 조금 뚫어 주었다. 이제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렸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내 값싼 동정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의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자식이나 부하직원이라면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니 조직의 미래까지 같이 생각해서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 안전과 편안함을 선물하기보다는 역경과 고난을 선물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개인들이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 조직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실패와 역경보다 더 좋은 스승,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다. 미물인 독수리도 새끼가 날 때가 되면 높은 동지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한다. 살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다 보면 어느새 바람을 타고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스스로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게 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어렵고 어렵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여 그 일을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유만만한 고수가 된다.

대부분의 신참에게 일을 맡기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쫓달때다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상사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된다. 자존심이 상하고 울화가 치밀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衝動)에 감정 정리를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뭘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낙담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다 보면 또 한고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백전노장(百戰老將)이 되어가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힘에 버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다.

어려운 과제를 해낼 때마다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성장한다. 모진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아름답다 나무로 성장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성장의 기회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후배들을 채찍하고 격려하는 고참(高參)이 되는 것이다.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고 했다. 역경을 참고 이겨내는 자가 승자(勝者)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뭄이나 장마, 태풍으로 인해 가을의 쌀 풍년 농사가 잘되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우리나라 벼농사 평균 통계는 해마다 풍년작으로 쌀 수확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고, 태풍을 내륙으로 직접 불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마다 풍년 농사로 이어져 쌀 걱정을 면하게 되고, 쌀이 남아돌자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정도령님의 풍운조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덕분이다.



▲ 1981년 이후 계속되는 가을 풍년 쌀농사

번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과거에는 하늘 탓으로 돌리고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말씀처럼 구세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여 다섯 가지 공약의 축복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4계절 큰 피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정도령님의 5대 공약 실행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격암유록에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정도령이며, 그 증표로 ‘화우로 삼봉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와 장수 풍백(風伯), 운사(雲師), 우사(雨師)에 관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것처럼, 장수 풍백, 운사, 우사는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구세진인 정도령의 풍운조화 능력은 바로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계승되어왔다는 증거다.

一行 徐輔睦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불들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농작을 하겠다.
5. 남북전쟁을 끝내게 하겠다.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 44년이 지났을 날 지구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가 하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들게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갖추고 계시기에,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이 44년째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족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